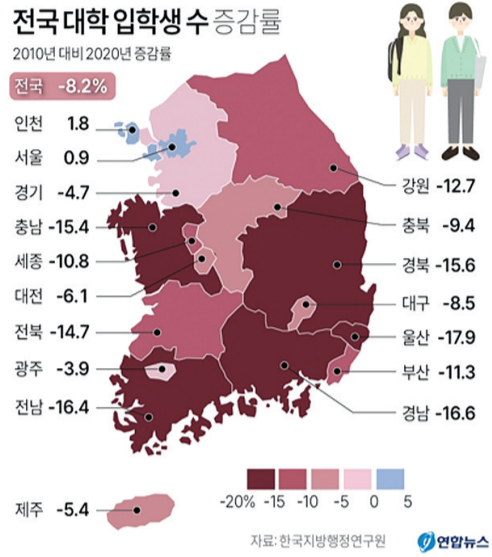


## 힘겨운 학생모집 눈물겨운 버티기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10>고사 위기 몰린 지역대학  
광주·전남 정원 못채운 대학 속출  
20년후 5곳 중 1곳만 살아남아  
정부정책 수도권 쏠림·불균형 촉진  
지역 상생 특단의 생존대책 절실



“이제 대학들은 학생인구 감소로 ‘데스밸리(Death Valley)’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한 대학 위기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대학이 학생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대학에게는 더 가혹한 시련이다.

최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정원 3029명을 채우지 못했다. 광주는 9개 대학 1554명, 전남은 9개 대학에서 1475명의 결원이 발생, 추가 모집에 나서야 했다. 광주·전남 7개 대학은 정시모집 경쟁률 1대1에 미치지 못했고, 정시모집에서 4개 학교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전남 A대학 관계자는 “올해는 그럭저럭 버텨냈지만 해마다 신입생 모집이 전쟁”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은 학생인구 감소로 해마다 악전고투하고 있다. 국·사립을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99.69%, 99.4%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상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를 보면 2022년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8.7%, 92.7%였다. 2022년 광주·전남지역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4.4%, 83.0%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하다. 이통기 동시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의 ‘인구변동을 둘러싼 주제를 통한 미래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절반(49.4%)만 살아남고 나머지 195곳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전체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5% 이상인 곳은 서울(81.5%)과 세종

(75.0%) 뿐이었고 경남(21.7%), 울산(20.0%), 전남(19.0%) 등은 5곳 중 1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학생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광주·전남 대학들은 신입생 급감에다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립대학이 전체수입의 6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수 급감이 대학을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공개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대학 재정결손이 처음 나타난 지역은 2012년 광주·세종·전남이었고, 2013년부터는 부산·경북·전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국내 사립대의 2021년 한 해 적자가 1550억 원에 달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나서 2022년 현재 광주에는 3688명, 전남에는 2179명 등 모두 5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라는 데 있다. 경쟁력을 잃은 지역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이 때문에 주민,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여건과 직장을 찾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대학이 지역인재의 탕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지역 소멸과 침체를 가속화하는 구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발레 천사의 화려한 자태 제68회 호남예술제가 26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 발레 클래식 부문에 참가한 백다원(복성중 3)양의 경연 모습을 니콘 Z9 카메라 3D 트래킹 포커스를 이용해 다중촬영했다.<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시 ‘24시 안심 병원’ 운영...어린이 의료서비스 강화

동네 병원~응급센터 연계 체계  
‘병원 동행’·‘입원 아동 돌봄’ 확대

광주시가 연중 자정까지 문을 열고 이후에는 응급의료체계와 연결하는 ‘24시 어린이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공공의료체계 전담팀 가동하는 등 어린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맞벌이 부부 등의 아기 키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광주 북구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공공 의료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오픈런’이 빚어질 만큼 진료 대란과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에 부모들의 애가 타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의료계와 협업체 어린이 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해 24시 어린이 안심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적으로는 34곳이나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어 경증 소아 환자와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광주시는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연중 자정까지 운영하는 24시 어린이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인건비, 시설 개설 자금, 홍보비 등을 지원해 경증 환자 야간 진료 공백을 매우고 부모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공모 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원, 24시 안심 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광주 동구에서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도 내년부터 광주 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만 4~18세 환자 가정에서 신청하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로 내년 시범 운영한 뒤, 수요에 따

라 2025년부터 전담 돌봄비를 자치구별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 간병(복약·식사), 정서적 놀이를 지원하는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연간 이용자 규모를 1000명까지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광주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고, 24시 어린이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3가지 핵심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의 큰 우산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돌봄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40년의 기다림 | 20년만의 첫!공급

### 부담없는 가격의 특별함까지!

광주두암 신일 해피트리 더퍼스트

- 407세대 대단지를 부담없는 가격 그대로**  
20년만에 두암동에 신규 공급되는 407세대 프리미엄 단지. 부담없는 가격으로 대단지의 특별함까지 누리는 실속라이프.
- 초·중교를 도보 5분거리의 안심 통학**  
문화초등학교, 신광중학교를 단지 가까운 거리에서 안심 통학 가능한 명품 교육환경.
- 쇼핑·문화를 도보거리로 누리는 여유**  
홍플러스 몰광주점, 진화농산물도매시장 등 다양한 쇼핑과 문화를 한눈에 누리는 최고입지.
- 특별함으로 설계한 프리미엄 라이프**  
다양한 테마정원과 주민커뮤니케이션 시설,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한 공간구성.
-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누리는 특별함**  
전국 어디든 호남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동문대로, 동광주IC를 통해 쉽게 이동 가능한 교통망.
- 도시 편의시설, 청정자연을 동시에**  
광주광역시외 명산 두동산을 병풍처럼 누리고 우산근린공원, 진화체육공원까지 즐기는 힐링 청정자연 환경.

총 407세대 조합원모집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

TYPE 84㎡ A / 84㎡ B / 61㎡ A / 61㎡ B

# 1522-4633